

악탈적 금융 몰린 저축銀 “은행과 단순비교 억울” 반발

금감원, 시중銀-저축銀 NIM 비교 차주 신용등급 상환능력 고려 안해 저축은행 “비교대상 아니다” 불만



금감원이 최근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현황을 내놓자 업계에 불만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이 지난 7월 30일 고금리 대출 저축은행의 명단을 공개해 저축은행 업계가 불만을 내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발표가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저축은행 입장에서 '고금리 대출 저축은행 줄 세우기' 자체가 금리 인하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1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운용 실태' 발표 자체가 저축은행이 곧 악탈적 금융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반발했다. 운용실태를 통해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규모를 발표해 '저축은행은 곧 고금리 대출을 진행하는 금융기관'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중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은 취약차주가 많아 고금리 대출이 많을 뿐이다”라며 “저축은행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고금리를 부과하는 악탈적금융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비중을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비교·분석해 가계신용대출에서 고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6.1%로 지난해 대비 소폭(4.5%포인트)감소했지만 잔액은 6.8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증거자료가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전 시점부터 조사돼 고금리 대출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금리로 진행된 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규모가 줄지 않을 수 있다”며 “취약차주 경우 금리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취약차주의 연체와 부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규모를 낮추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금리를 과도하게 받고있다는 증거로 국내은행과 저축은행 간 순이자마진(NIM)을 비교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NIM은 6.8%로 은행(1.7%)보다 5.1%포인트 높다”며 “저축은행이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고금리를 부과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NIM비교는 거래고객의 특성

을 반영하지 않아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대출을 하러 오는 고객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돼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차주의 채무상환이 불가능할 경우를 감안해 차주의 신용위험까지 반영된 이자 마진이기에 때문에 은행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금리 등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중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을 위해 금융당국의 현실적인 ‘포용적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실명 발표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유리 기자 yul15@metroseoul.co.kr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KEB하나銀 출시기념 ‘전환손님’ 사은이벤트 다채

KEB하나은행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를 기념해 신규가입 및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손님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주거복지 향상 및 내 집 마련 자금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출시한 상품으로, 만 19세~29세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청년이라면 1.5% 우대금리 및 비과세, 소득공제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를 기념해 KEB하나은행은 올해 말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가입 및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는 손님 모두에게 1만 하나머니를 지급하는 사은행사를 실시한다.

또한 오는 9월 말까지 신규가입 및 전환 손님 대상으로 40여명을 추첨해 ▲1등



3명에게 가족여행 상품권 ▲2등 10명에게 뉴아이패드 ▲3등 30명에게 백화점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이밖에 오는 9월에 예정된 축구국가대표 A매치 경기에 총 100명을 추첨해 각 2장의 입장권을 증정하는 초청 이벤트와 하나금융그룹 및 KEB하나은행 광고모델인 손흥민 선수와 래퍼 김하은의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7월과 8월 중 선착순 1만명에게 각각 제공하는 행사를 함께 진행한다. /김문호 기자 kmh@

“클릭만 하면 고수익”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금감원, 투자사기 등 피해 단속 파파라치 포상 등 신고·제보 당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피해 단속에 나섰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특별한 사업 모델이 없는데도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업체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최근 유사수신업체들은 단순 회원가입, 광고 클릭이나 댓글 작성, 신용카드 사용만으로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투자를 속이고 있다. 또 미리 투자한 사람들은 이미 고수익을 달성했으며, 빨리 투자할수록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투자자의 조급한 심리를 악용해 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업체는 인터넷 재택 부업 회사로 가장해 단순히 회비를 내고 회원가입만 하면 단기간에 원금이 회복되고, 장기간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투자를 현혹했다. 3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원씩 지급해 10일이면 원금이 회복되고, 2년 동안 계속 동일한 수익을 지급해 최고 73배 이익을 얻게 된다는 식이었다.

또한 광고 서비스 회사로 가장해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단순히 광고만 보거나, 광고에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회사도 있었다.

전 세계에 많은 지사를 두고 세계 최초

로 광고수입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몇만원만 투자해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회원가입 후에는 게재된 광고만 봐도 매일 8%의 이익을 무한대로 얻는다고 속였다.

그러나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 업체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112)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통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KB국민銀 9월말까지 신규가입 추첨 경품 ‘평평’ 용산 아파트 가격 0.26% ↑ ... 증가세 지속

KB국민은행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를 기념해 오는 9월 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가득(가득) 신규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영업점을 통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고객 119명과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고객 300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뱅킹, 전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이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일정 자격이 충족되면 우대이율이 제공되고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비과세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가입자격은 만 19세에서 만 29세의 무주택 세대주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의 근로·사업·기타 신고소득이 있는 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만 30세 이상이더라도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을 차감해 만 29세 이하인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일정 자격 충족 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향후 20대 청년들의 자산증대와 내 집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 1면 “강남보다 용·여”... 서 계속

◆ ‘강남 비켜’...매물 풀기, 가격 ↑ 매물 풀기 현상에 집값은 더 뛰고 있다. D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하루 만에 호가를 5000만원 더 올리라고 하더라”며 “일정 가격 이상 안 올리면 매매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아예 철회하는 집주인도 많다”고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이 0.26% 올랐다. 용산은 지난 9월 0.12%, 16일 0.20%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를 보면 이촌동 강촌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106.645㎡가 14억5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16억원대 이상이다.

왕궁아파트도 지난 5월 102.48㎡ 물건이 13억8000만원(2층)~14억3000만원(3층)에 거래됐으나 현재는 같은 타입 매물이 16억원대다. 서빙고동 신동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2월만 해도 95.66㎡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벽면에 붙여 있는 매물정보.

13억3000만원(3층)에 거래됐는데 이달 같은 층수가 15억원에 팔렸다.

래미안첼리투스 아파트는 지난달 124.02㎡ 타입이 27억6000만원(18층)에 거래됐다. 현재는 29억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최대 35억원짜리(층수·평형 상) 물건도 나왔다.

D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박 시장 발인 후 매매물건이 줄줄이 보류되고 있다”며 “집주인들은 향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글·사진=채신희 기자 csh9101@

우리은행 외화 후순위채권 3억불 발행 성공

우리은행은 외화 후순위채권(코코본드) 3억달러 발행에 성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채권의 만기는 10년이며 금리는 5.125% 고정이다. 우리은행은 고정금리를 수취하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을 통해 채권금리를 ‘3개월 리보(LIBOR)+2.06%’(현재 4.40%)로 전환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외화 후순위채권 발행과 지난 7월 원화 신종자본증권 4000억원 발행을 통해 BIS비율을 높이며 지주사 전환에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최근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증권 발행이 어려웠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행은 성공적이었던 시장의 평가다.

최근 미국 금리인상 기조로 장기 고정금리 채권에 대한 글로벌 투자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리은행은 장기물 투자에 우호적인 미국과 대만 투자자를 공략했다. /유재희 기자